



보통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학창시절에 존경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선생님은 이 막막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후에 잘 살았다고 할까, 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막연히 '쉽진 않겠지만 보통사람으로 살아보자' 였는데 세삼 이런 주제로 학생 여러분에게 글을 쓰게 되네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물으면 두 가지로 분류될 거 같아요. 하나는 특별한 사람, 또 다른 하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보통사람일 거 같아요.

그럼 보통사람이고 싶어 하는 두 분의 얘기를 해 볼까요. 하나는 군부 통치 시절 '나 이사람 보통사람 믿어주세요' 라는 말을 수 없이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수많은 비자금 사건으로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분의 사투리 말투 또는 옷은 얼굴표정이나 외모만을 보면 평범한 보통사람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한분은 영화 영웅본색과 첩혈쌍웅 등으로 홍콩 누아르 영화의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금도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며 행복한 보통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영화배우 주윤발인데요. 평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옷을 입지 않는다.

편안하면 된다.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까지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12만 원 정도의 돈으로 매달 생활하고, 17년 동안 이제는 생산도 되지 않는 구형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최근 들어 수리할 수 없을 만큼 핸드폰이 망가진 후에야 새로 핸드폰을 장만했던 배우. 꿈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8천100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는 영화배우 주윤발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선생님은 보통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그럼 보통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늘 공부를 하면서도 진리를 추구하여 학문의

“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옷을 입지 않는다. 편안하면 된다.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까지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대가가 된다든지, 전공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위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진리와 사상이 담긴 책을 읽으면서 사는 여유와 보람을 맛보고 도덕적으로 인격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애쓰며 스스로에 대한 성실을 바탕으로 부단히 자아를 성찰하고 남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보통사람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문학이나 회화나 음악의 대가가 되기보다는, 전시장에서 공연장에서 또는 작품 속에서 그들이 연출해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즐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어 그 인기를 세계에 떨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더불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마추어를 동경하면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보통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이렇듯 보통사람이 되려면 물질의 풍요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 적게 소유해도 좋으니 얼마나 많이 갖느냐 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모으느냐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많이 갖기를 원하지 않

며, 독불장군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기도 바라지 않으며,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테 어울려서 우리라는 말을 더 즐겨 쓰기에 우리들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소리 없이 자비심으로 도우며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것, 몸이 깨끗하여 나쁜 짓을 삼가며 입이 깨끗하여 남을 속이는 말이나 이간질하고, 폭언하고, 식언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하길 바란다. 이렇듯 보통사람이란 어쩌면 특별한 사람보다 더 되기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어렵지만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어질고(仁), 의로우며(義), 예절을 지키고(禮), 지혜롭고(智) 믿음(信)을 가지고 살라는 다섯 가지의 도리 즉五常(오상)을 바탕으로 한 밝고 맑은 행복한 세상을 항상 꿈꾸는 학생 여러분! 저와 함께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